

韓國住宅 과 住居生活

張 起 仁
(三成建築研究所代表)

1. 주택의 형성

한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의 住宅은 방 한칸이라 하겠다. 한 가족이란 부부와 어린아이들로 구성된 근래 말하는 핵가족 단위로 생각할 수 있다. 방 한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은 부엌이다. 그리고 방에는 온돌을 갖추고 불을 때는 곳이 부엌이 되고, 또한 식사를 제공하는 숙설칸(熟設間)으로 겸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근간에도 간혹 대흥수나 화재를 당한 주민들이 임시 기거 할 수 있도록 한칸 방의 토막(土幕)을 치고, 여유를 보아 온돌을 구성하고, 한 곳의 불아궁이위에 짚을 덮어 반칸 부엌이라도 곁들이는 일로도 알 수 있다.

우리는 방(房)이라면 무엇보다도 온돌을 놓아 만든 것을 연상하고, 또 그것이 가장 요구되는 일이다. 따라서 맨바닥에 거적을 까는 것은 시초이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온돌을 축조하는 것이 가장 바라고 있는 긴요한 일이 되는 것이다. 맨바닥은 봉당(封堂)이라고도 하지만 습기차고 바닥이 패이니까 거적을 깔거나 넓적한 돌을 깔거나 널판을 덮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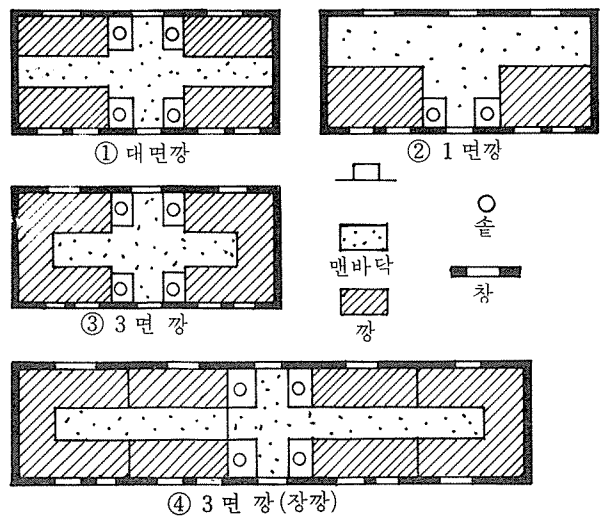
이와 같이 방에 온돌을 구조한 것이 북방 한대지방의 주거에 가장 알맞는 것이기에 온돌이 먼저 형성되고, 또 불아궁이 부엌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주택의 시초라 하겠다. 다만 남방의 온대지방에서는 온돌 축조가 번거롭고 보다 위생적인 널마루가 형성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마루방이 어느 지방에서 어느때 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추측해보면 호남지방이나 영남지방,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서 먼저 성행되었을 것이다. 그 시기는 고신라(가야), 고구려, 백제, 등의 삼국시대(B. C 57~A. D 668)에는 출현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남방에서는 마루방이 주실이 되고, 북방에서는 온돌방이 주실이 된다. 이것은 제주도 민가에서 부엌 옆에 접한 마루방이 주실이고, 부엌에는 따로 가마솥을 거는 부뚜막을 구성하는 수법에서도 미루어 알 수 있다.

2. 북부 극한지 주택

북방 극한지(만주·함경북도 지방)에서는 방의 온돌의 구성은 서중부(평안도·황해도·경기도·강원도지방)의 온돌의 구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만주지방에서 깡(炕)이라 불리우는 온돌식 난방법은 간단히 방의 일부에 불을 때는 부엌 또는 헛부엌을 두어 불아궁 또는 부뚜막을 설치하고 부엌과 방의 사이에 간막이벽을 치지 않고 구들만 한단 높이 축조한다.

다음(그림 1) 깡의 평면형은 1945년에 발행된 『깡 및 溫突의 위생학적연구』만주 의과대학 위생학교실 玄圭煥(改名 大原信活)저에서 전사된 것이다. 깡의 한 옆에 불아궁 또는 부뚜막을 두고, 바로 구들을 1단 높게 놓아 기거하는 방으로 쓰고 있다. 이 부뚜막의 형식은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고구려 부뚜막』이 그 일면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 1) 깡의 평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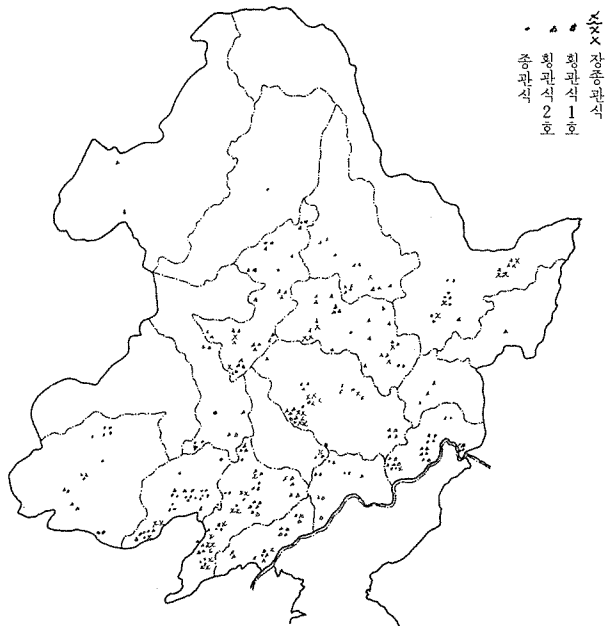
후세에 고급주택의 깡과 부엌 사이에 벽을 치고문도 달았지만 단칸 방 저소득층의 주택에서는 벽을 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와 같은 형식은 함경도지방 접접의 부엌에 달린 정춌

간(厨間)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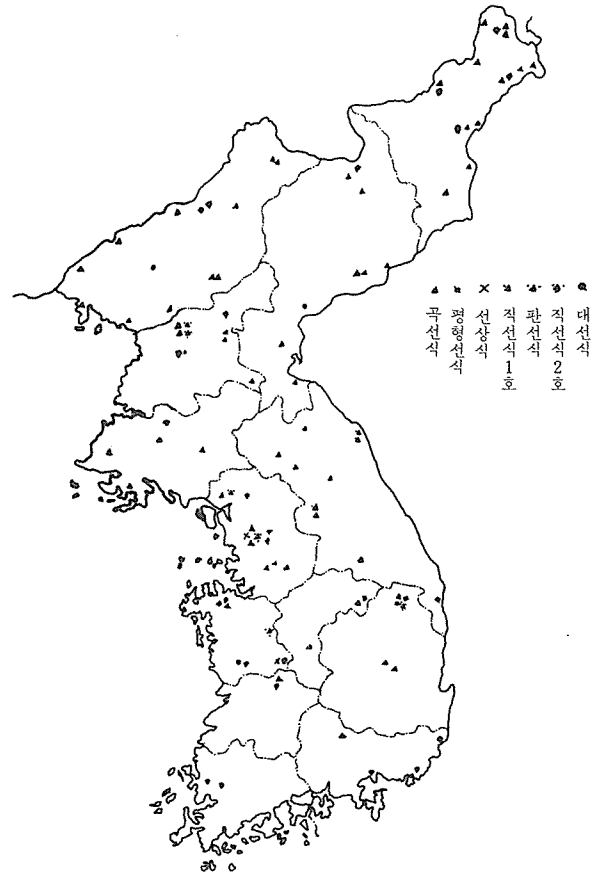
정춧간은 부엌에 연달아 꾸미되 부엌과 정춧간 사이에는 벽을 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부뚜막을 설치한다. 이 정춧간은 극한지방에서 외출하여 얼어 들어온 사람이 몸을 녹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또 쾌락한 장치로 인식되는 것이며 추운날 밖에서 들어온 어린아이들이 온돌방의 아랫목 이불 속으로 파고 드는 안락과 유쾌한 보금자리로 생각하는 것 이상일 것이다.

이와 같은 구들방과 부엌과의 구성은 일찌기 고구려 건국 이전에 성행된 것으로 보아진다. 즉 강이나 구들의 구성방식은 이미 한민족·여진족간에 널리 알려져 있어 만주 일대와 함경도 일대에서 성행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림 2) 만주지방 강(炕)의 기본형 분포상황 (김규환·저 강 및 온돌의 위생학적 연구에서)

(그림2)와 (그림3)은 『강과 온돌의 위생학적 연구』에서 보이는 분포도로서 짐작이 가는 바이다. 이 분포도는 강(炕)의 형식과 온돌의 형식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이와 같이 넓은 지역에 분포될 수 있는 사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전파된 것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림 3) 한국온돌의 기본형 분포 상황 (김규환·저 강 및 온돌의 위생학적 연구에서)

3. 서중부 한냉지 주택

서중부 한냉지 (평안도·황해도·강원도·경기도)에서는 부엌과 구들방 사이에 간막이 벽이 있다. 그 초기에는 강이나 정춧간과 같은 형식으로 되었을 것이지만 점차 인지의 발달과 생활형식의 진전으로 보다 위생적이고, 더욱 안락한 채난방법으로 전개되어 간막이벽이 구성되었을 것이다. 서중부 지방에서는 한기에 못지 않게 불어치는 계절풍이나 강풍에 불이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불을 때는 아궁이의 연기 그을름등을 막는 것에도 치중하였다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불 때는 아궁이는 한 곳에서도 가능하지만 따로 불 때는 헛간을 꾸며 계절풍이나 강풍을 방지하고, 아울러 땀감도 저장하는 창고로도 쓰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식사를 마련하는 부엌은 온돌방에 접하여 부뚜막을 두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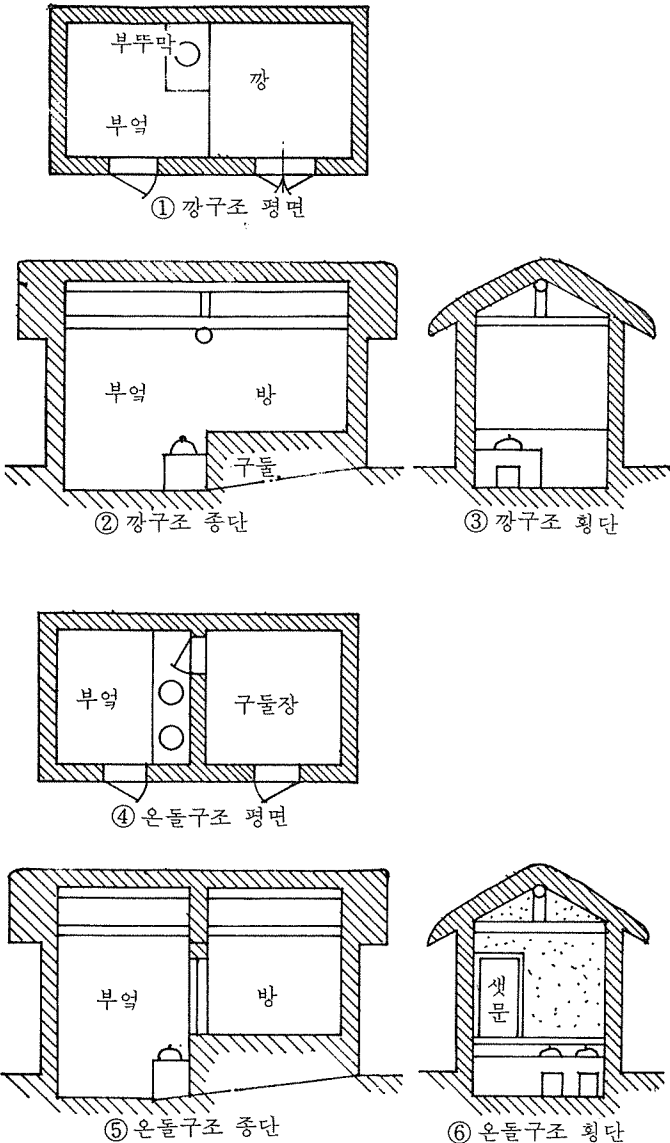
불아궁만이 필요한 곳에도 불뿔 칸을 마련한다. 사랑채 부엌 또는 뒷간 불아궁으로 불뿔 칸을 마련하는 예는 근래 까지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불뿔 칸을 제주도에서는 「굴목」이라 하며, 함경도나 평안도에서는 이와 비슷한 발음으로 굴목 또는 굴목이라하며, 이는 굴뚝을 지칭한다. 또는 굴목뚝이라고도 한다.

구들의 불아궁은 구들밑에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부뚜막을 방 바깥에 내밀어 꾸미면 불때기에 편리할 뿐아니라 화기의 조심에도 유리하다. 따라서 솔을 거는 부뚜막을 구들 바로 앞에 두게 된다. 이렇게하여 한 곳에 있는 부엌은 격물안에 있게 하고, 구들의 불아궁 앞에 부뚜막을 만들어 솔을 걸고 겹하여 구들 불도 때게 되어 생활은 더 없이 편하게 되었을 것이다. 현재에도 함실아궁 구들말리기를 위하여 불이 잘 타지 아니하는 관제도 있지만 돌·벽돌·기와쪽 따위로 임시 부뚜막 불아궁을 만들고

불을 때면 안전하고 또한 편리하여 많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사랑채 부엌·뜰 아래 방의 불뿔 칸에도 간단한 부뚜막을 꾸미는 것이 보통이다.

4. 정춧간과 온돌방의 비교

정춧간 또는 만주지방에서 깡(炕)이라 하는 것도 온돌방과 같이 구들을 놓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온돌방은 주위를 벽으로 둘러치고 불뿔 곳은 칸을 따로 만드는데 비하여 정춧간이나 깡에서는 불뿔 칸과 정춧간 사이에 칸막이벽을 두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사이에 칸막이가 있게 된 것은 후세 또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에 생겨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 구들의 불아궁과 불뿔은 부뚜막과 솔을 걸어 음식을 끓이는 솔부뚜막의 구성은 주택의 변천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한때 부엌은 지붕을 씌워 부엌과 불뿔 칸을 결합하게 구성하여 음식 장만과 구들불 지피기에 편리하게 진전되었다고 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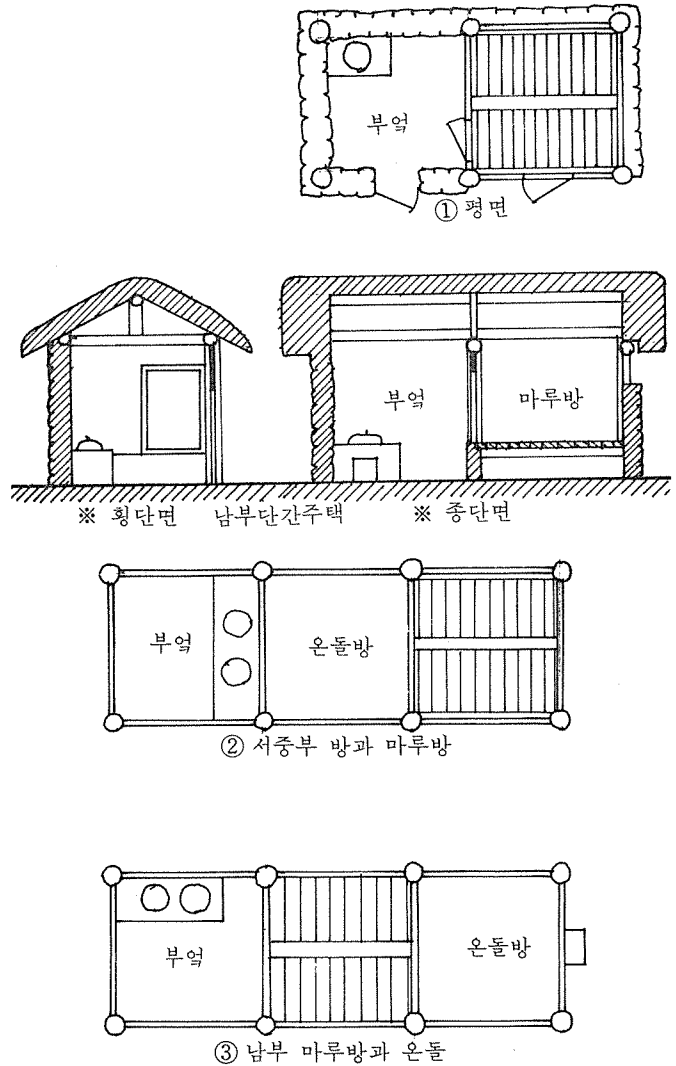


(그림 4) 깡구조와 온돌구조 약도

5. 남부 온난지방의 주택

온난지의 초기 주택은 마루방 한 칸과 부엌 한 칸으로 시작하여, 마루방 한 칸을 더 늘리고 부엌도 확장하게 된 다음에 온돌방이 도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림 5) (남부주택의 상상도)에서 ②는 서중부지방의 온돌방이 달려있는 평면이고 ③은 남부지방의 마루방에 온돌이 붙어 주택이 형성돼 가는 초기의 평면을 상상하여 그린 것이다.



(그림 5) 주거 남부주택 상상도

제주도의 주택 예를 보면 부엌은 별실로, 주거용 객실은 마루방을 중심으로, 광·작업실등을 한채로 꾸미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온돌방의 도입은 그 옛날에도 특수층의 주택 또는 관공서용의 주거실에서나 볼 수 있고, 일반 민가에서는 드물었다고 한다. 조선조 말기에서는 교통도 빈번하고 내륙과의 물물교환도 왕성하여 온돌방이 파급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온돌은 오직 한 동기에 유리하여 비가 잦고 습기가 차기 쉬운 장마철에는 불뿔은 번거러움도 있으려니와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마루

방이 보다 중요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제주도에서는 부뚜막 시설을 직접 마루방이나 방에 접하여 두지 않고 화재 기타를 고려하여 돌담벽 쪽에 따로 두는 것이 보통이다. 간혹 온돌방에 인접하여 부뚜막을 둔것은 구한말에 와서 실배치(간살잡기)에 온돌이 우선적으로 도입된 데 기인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호남·영남 등의 남해안 일대의 온난지에서도 제주도 와 동형인 마루방이 주실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되지만 추운 겨울철이 2~3개월이 되니까 온돌이 일찍부터 채택되고 또 문 불의 교류도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 교유의 간살잡기는 거의 볼 수가 없게 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무더운 여름철의 기거에는 마루방이 존중되고, 또 넓은 마루방을 꾸미는 일은 이 일단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일정기에 일본인들의 주거생활도 많은 영향이 깃들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보아 진다.

마루방의 구성은 남방 다락집이 근거가 된다면 부엌을 별실로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루방 점차 복잡하여 중부지방에 널리 쓸이게 되었고 보다 늦게 더욱 복잡되어 함경도평안도에 도입된 것은 비교적 후세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공공건물·대 규모 또는 상류주택에서는 일찍부터 바닥을 꾸미는 한 방법으로 마루가 채용되었을 것이다. 일반 서민주택에 일반화되기란 문물의 교류도 늦지만 가중하여 경제상 많은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마루방은 건조하고 무더운 여름에는 마루 밑 동풍으로 서늘한 기분이 나고 좌식생활의 피부접촉 감각에도 가장 쾌락한 재료이고 그 미관과 내구력도 우수한 편이기는 하나, 화재와 부식에 조심해야 하는 결함이 따른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불을 때는 부뚜막은 별실 또는 별채로 구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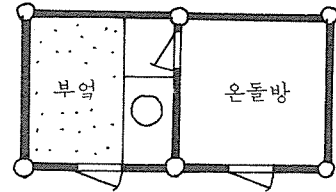
6. 방의 확장

(1) 2칸 온돌방과 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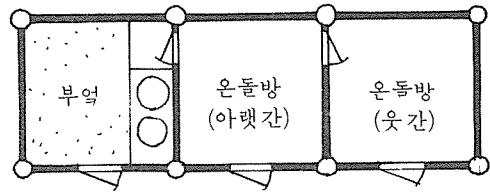
식구가 늘고 경제적 기반이 확립되는 시기에는 방 한칸 으로서는 협소하므로 한 칸을 더 늘릴 것이 요망된다. 이 일들은 분가해 나가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에서 부엌이 달린 한칸방을 세들어 살다가 두칸방과 부엌이 있는 집을 열망하게 되는 사실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목조가옥에서 방 한칸의 크기는 2.40-3.00m(8~10尺)의 단위가 표준이다. 따라서 방 한칸을 늘린다면 방에 연이어 짓게 되고 온돌은 통이칸으로 구성한다. 보다 여유가 생기면 여기에 반칸정도의 퇴간(退間)을 달아 방의 출입에 편하게하고 또 밀폐된 방의 공간과 외부 공간의 연결 공간으로 생활에 편익을 도모한다. 퇴간은 대개 방의 전면에 두고 너비는 반칸 정도로 한다. 보다 넓은 생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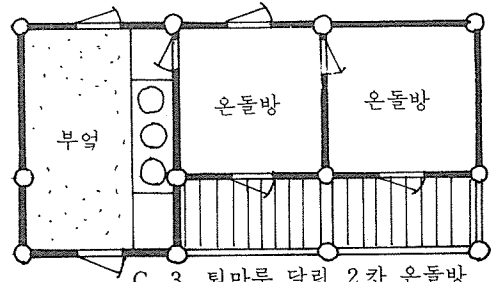
간을 구성하고자 할 때는 방의 후면에 퇴를 달아 내기도 한다. 이곳은 방의 보조적 용도에 쓰이는 벽장·반침 등 창고로 쓰일 때와 간을 다소 넓게 잡아 작은 부속실을 꾸밀 때도 있다. 이것이 발전되면 골방(谷房)형을 이루지만 이때는 퇴간으로 생각되지 아니한다. 여기에는 오직 반칸 정도의 넓이이거나 주실보다 썩 작고 좁은 간으로 구성한것은 퇴라 한다.



D 전국



C. 2칸 온돌방



C. 3 퇴마루 달린 2칸 온돌방

(그림 6) 방·퇴마루의 확장

퇴마루달린 두칸 온돌방의 주택(그림 6 방 퇴마루의 확장 참조)은 한 단위 가족생활의 주택의 기본으로서 서중부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널리 쓰이는 표준 주택 평면이다. 여기에는 부엌이 서쪽에 달렸으나 출입대문이 동쪽에 있거나 또는 서쪽 부엌 옆에 작업마당(Service yard)이 있을 때이고, 대문이 서쪽에 있거나 동쪽에 작업마당이 있을 때는 부엌을 주실의 동측에 둔다. 출입대문이 남쪽에 있거나 작업마당이 부엌 뒷편에 있을 때에는 동쪽이든 서쪽이든 관계치 아니하나, 지방에 따라서 서측에 많이 두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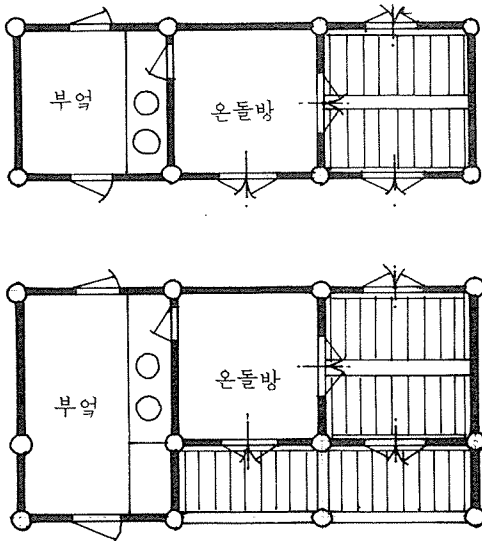
(2) 온돌방

방을 확장할 때 북부 한냉지에서는 온돌방을 한칸 늘리지만 남부 온난지방에서는 남방식 마루 한칸을 늘리는 것이 여름철과 겨울철의 사용에 편리하였을 것이다.

즉 제주도에서는 주실인 마루방을 한칸 더 늘려서 방을 확충하였을 것이며, 중부지방에서는 온돌방과 마루방을 북부지방에서는 온돌방을 한칸 더 늘렸을 것이 상상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한칸을 늘릴 때는 마루보다 온돌방이 더 요구되는 데 있다. 여름철을 시원하게 지나기보다는 겨울철 추위를 이겨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비하는 소망이 컸을 것이고, 마루방 꾸미기보다는 온돌방 꾸미기가 경제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온돌방은 인근에서 채취된 재료로 누구라도 꾸밀 수 있고 목수직과 같은 고도의 기술이 덜 필요하여 손쉽게 꾸며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퇴마루

방을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의 사용상 퇴간을 늘리는 것도 생활 편이상 필요하게 되어 먼저 남쪽에 퇴간을 달기도 한다. (그림 7 마루방과 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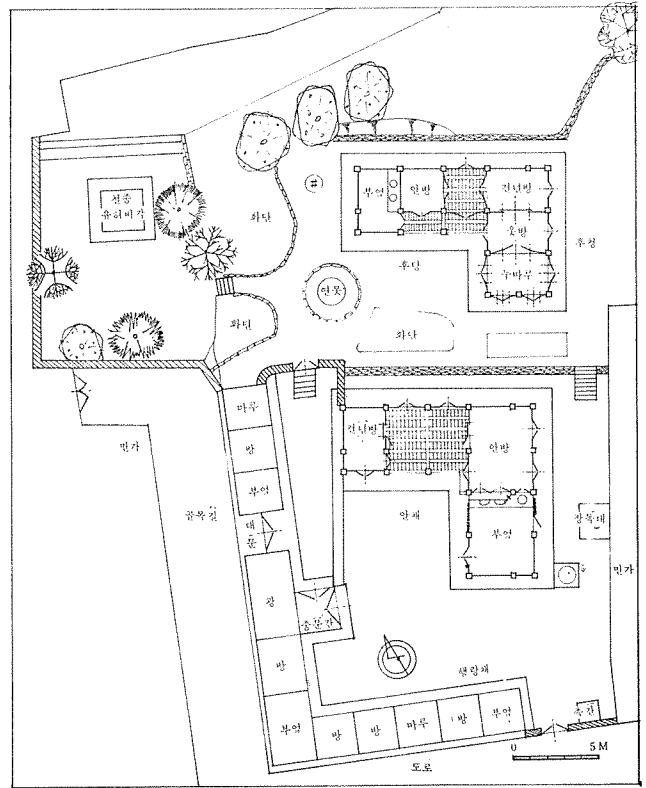


(그림 7) 마루방과 퇴간

퇴마루는 사방이 밀폐된 생활공간과 넓게 트인 마당 공간의 중간으로 여러 모로 편리한 것이다. 방의 출입에도 편리하고 마당공간에서의 작업의 연장된 장소로 또 휴게장소로도 쓰인다. 뿐만 아니라 들이치는 비를 막아 주어 방의 안전에 유리하고 햇볕의 가리개로도 편리하다. 따라서 두칸방이 형성되면 퇴를 다는 것이 건축의 진전 과정의 한 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퇴간에 마루를 깔기에는 많은 재료와 공임이 요구되므로 그냥 흙바닥으로 두었다가 여력이 생겼을 때 마루를 놓기로 한다. 이 퇴마루는 매 해 구들을 뚫고 구들고래에 앉은 꼬을음이나 재를 긁어 낼 때에는 손상되거나 작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들어올려 떼어 낼 수 있게도 한다.

방이나 마루방의 앞에 달은 퇴간 바깥에 창문을 다는 일은 근래에 와서 분합문을 드리게 되었으며 옛날에는 퇴간 안에 문을 달았다. 이것은 작은 마루방에서도 4칸

대청에서도 볼 수 있는 사례이다. (그림 8)은 강화 용흥궁(철종저장)의 후당 별채의 평면도로서 대청앞 퇴마루 안쪽에 4분합문을 달고 퇴는 개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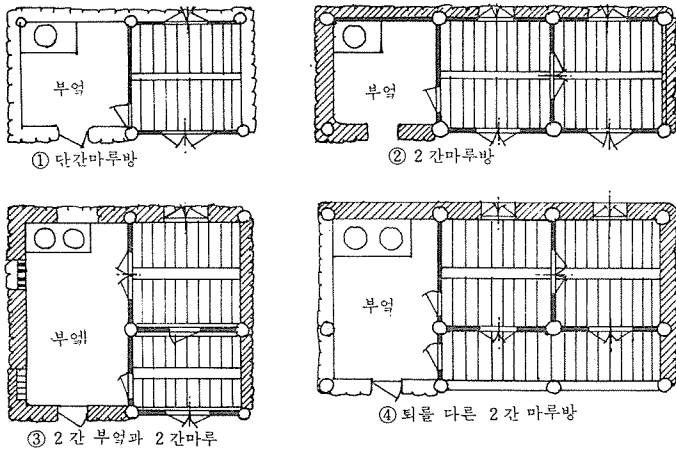


(그림 8) 경기도 강화 철종장저 배치도

(4) 마루방

남부 남해안 일대 특히 제주도에서는 기후의 온난과 생산 활동기간이 많으므로 마루구조가 일찍부터 성행되었을 것이다. 어느 민가라도 마루방이 꾸며져 있으며, 또 생활의 주실(主室)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엌과 마루방은 한 데 붙여 짓되 부뚜막은 마루방과는 관계 없이 따로 부엌안에 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방을 늘린다면 먼저 마루방 한칸을 더 늘렸을 것이다. (그림 9) (마루방의 증설) 평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칸 마루방집에서 2칸 마루방을 꾸민 것과 퇴마루를 달아 출입에 편리하게 한다. 그림 ②는 부엌은 확대하지 아니 할 때이고 ③은 마루방을 늘림과 동시에 부엌도 크게 늘리는 한 방식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퇴마루를 크게 넓혀 방으로 쓰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퇴간 구조 형식이 변형된 것인지 또는 함경도지방의 겹집형식을 처음부터 딴 것인지는 많은 조사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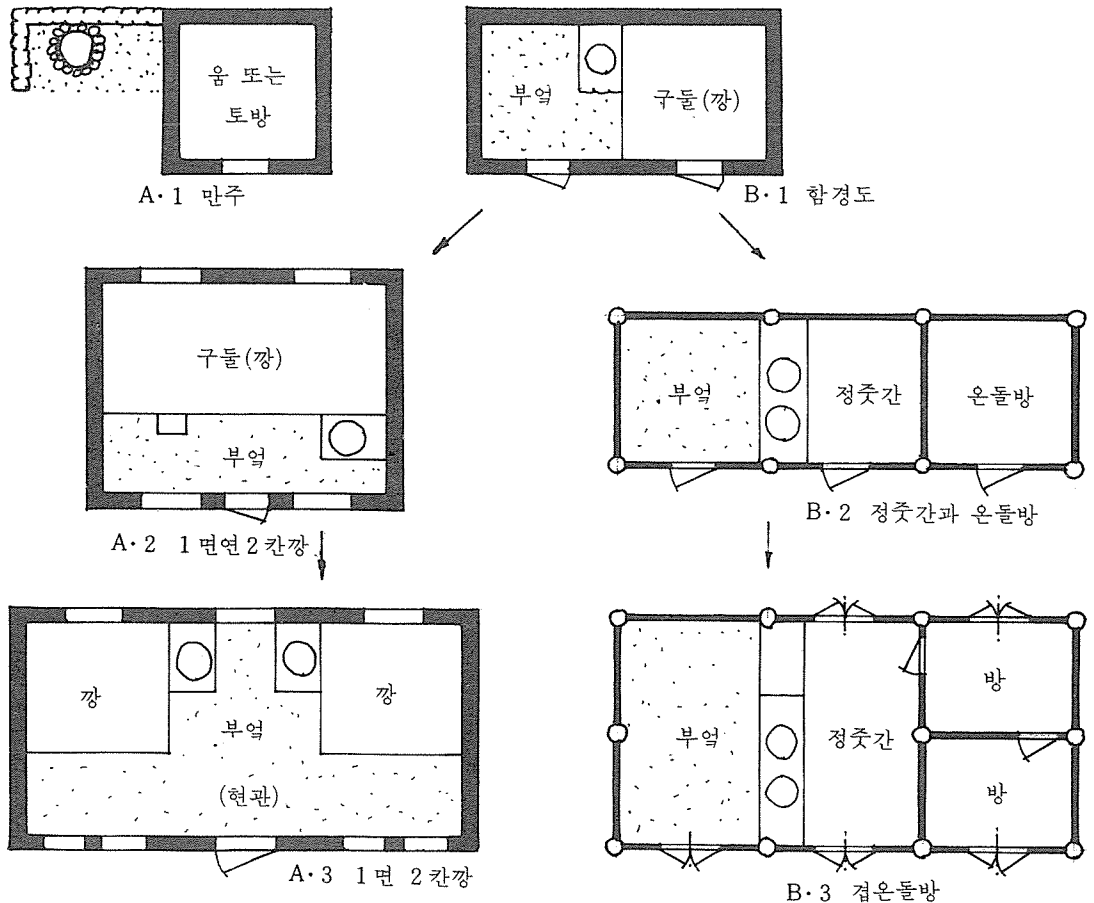
(그림 9) 마루방의 증설

3. 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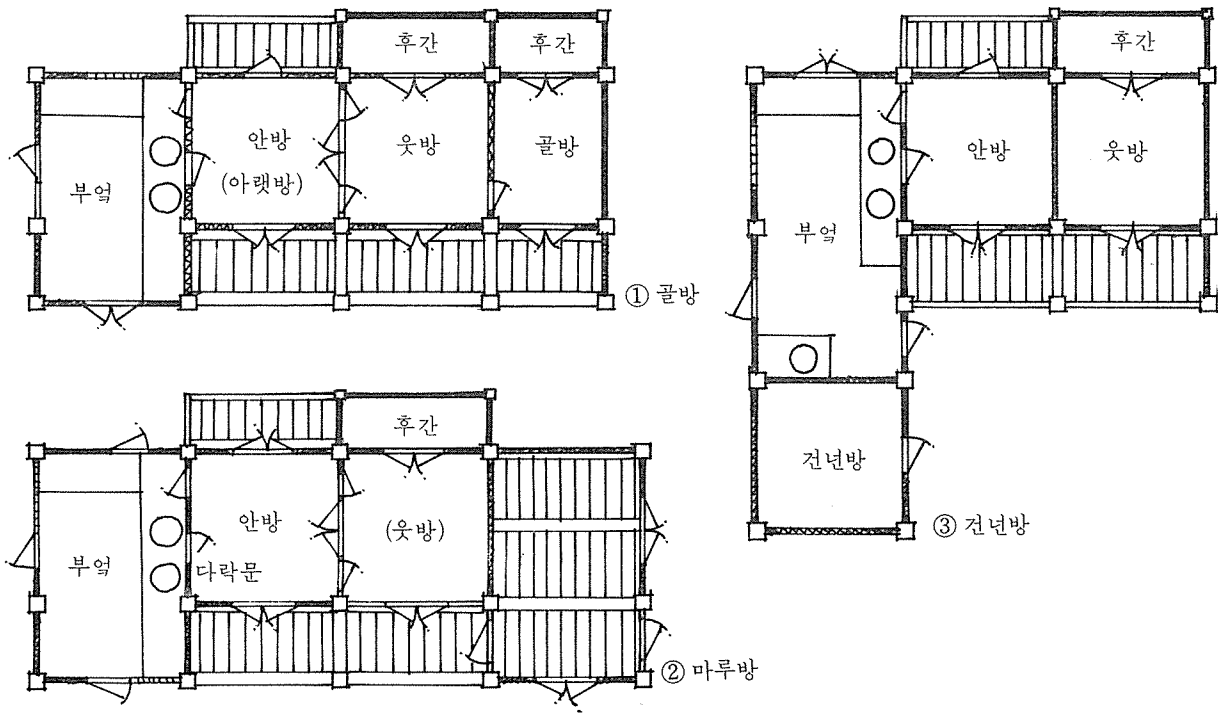
겹집이 어느때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알 길은 없으나 방과 부엌을 통이칸으로 형성하는 집이 있다. 함경도 지방의 부엌 앞이 정주칸(鼎厨間)이나 중국 만주지방의 깡(炕)과 주방(厨房)을 한방으로 형성한 것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서 정주칸과 방을 늘리자면 먼저 불때는 야궁

이가 필요하여 부엌이 길게 두칸으로 연장되며, 또한 정주칸도 2칸으로 연장될 수 있다. 여기에 방이 더 요구될 때에 비로서 겹집 즉 전(田)자형의 방 배치법이 생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겹집의 형식은 뒷칸을 다는 형식과는 전혀 다른 주택 구조공법에서도 나타난다. 두칸은 장보로 쓰기도 하지만 중간에 기둥을 세우고 각기 보를 걸어 이어지게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같은 구조법은 뒷칸에서도 같지만 한칸의 구성요인이 전혀 다른 데서 출발된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겹집과 뒷집은 발생요인과 발전과정이 전혀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그림10)은 겹집이 형성되어 가는 경로를 표시한 평면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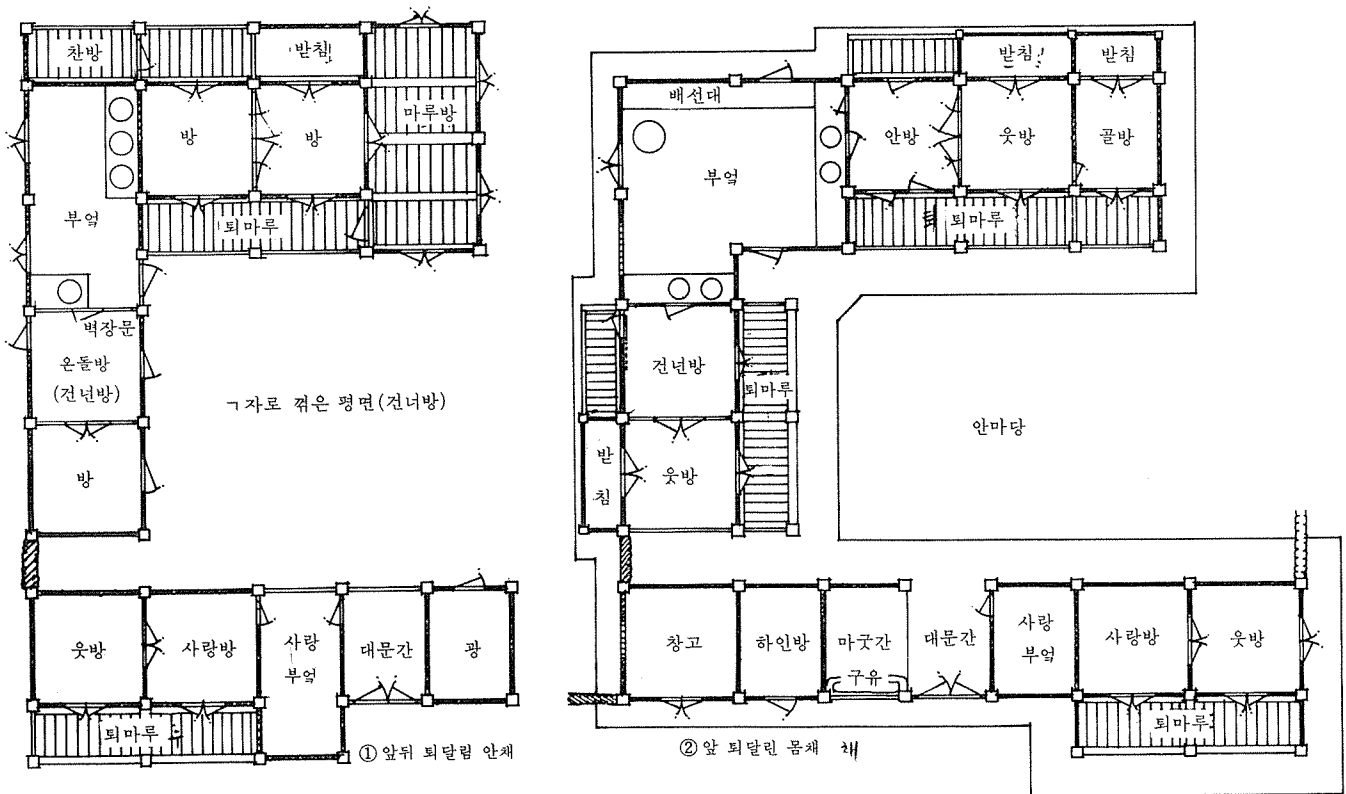
한칸의 정주칸 또는 깡을 확장하여 이어달은 2칸으로 꾸미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부엌도 2칸이 된다. 정주칸이나 깡만을 길게 늘릴 수도 있지만 방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부엌 작업장의 확장도 요구되기 때문에 정주칸과 부엌을 동시에 확장하는 것이 그 첫 단계라고 생각된다. (그림 10)의 ②에서 보는 장깡식 방의 확장은 출입이 불편하여 외부에서 직접 출입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방한(防寒)상 불리하기 때문에 초기 건축 확장법으로서는 그림의 ① 두칸깡의 구성이 타당하고, 또 구들의 효과도 크고 구들축조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주로 쓰였을 것으로 본다. 그림의 ③은 확대된 정주칸 뒤에 방한상 유리한 온돌방을 달아 지은 형식을 보인 것이다. 이 구조에서는 전혀 반칸식의 퇴로 구성한 것이 아닌 데 특징이 있는 것이다.



(그림10) 겹집·깡의 확장



(그림13) 서북부 방의 증설



(그림14) 7자집과 사랑채 (서북지방)

7. 주택의 완성

(1) 주택제도와 전통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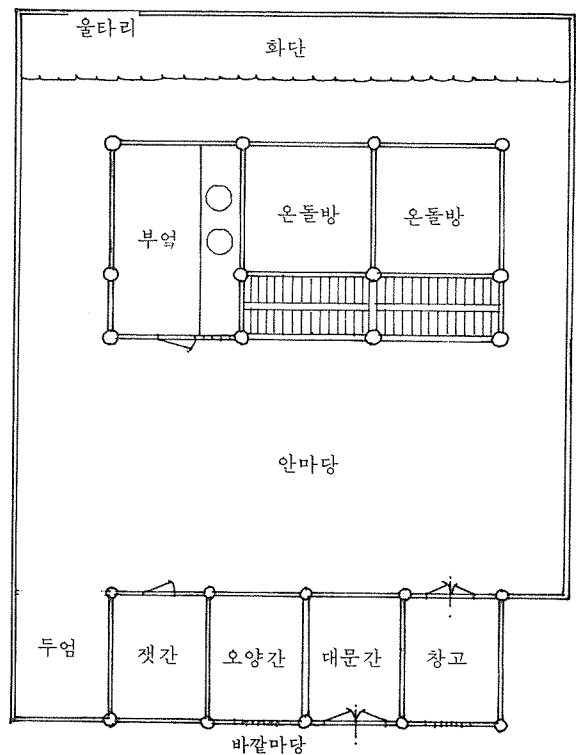
한 가구의 식구수가 늘고 경제기반이 윤택해짐과 동시에 사회 문물제도도 복잡하고 다채롭게 되면서 주거생활에도 많은 욕망이 생기게 된다.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다 넓은 주거공간과 가옥의 확충이 필연적으로 야기된다. 자연인의 개별 생활에서 집단생활로, 다시 국가 사회 생활에 순응하는 계급적 또는 전문적 생산능력이 확대되고 또한 남녀관계의 확립에 따른 가옥제도도 발생하게 된다. 고신라 시대에 주가의 규모를 제도화 하거나 대가족 귀천민(貴賤民)의 신분에 상응하는 주택제한(住宅制限)은 각 시대에 거론된 바 있으나 여기에서는 오직 주택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만을 들기로 한다.

인간 생산능력의 확대는 국가 사회제도의 발전과 가족과 예측되는 인간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대가족 대규모화 되는 과정에서도 비교적 서민 한 가족의 주거의 발전상도 다양화 되고 대규모화 되어 가기는 하지만 경제적 기반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각 시대를 통하여 미약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서민의 주거생활 양식은 크게 발전되지 못하고 대대로 이어 받은 가옥을 본따서 짓는 기술과 재력(財力)이라 한다면 삼국시대에서 신라통일기,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막론하고 구한말까지 연면하게 주가의 전통이 계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가옥에 획기적인 변모가 일어난 것은 서구의 문물이 도입되는 구한말기라 하겠으나 여기에 일제 식민정책에 따른 일본식 주거생활이 강요되면서 일부 도시지역에서는 고유의 가옥제도와 전통계승에 많은 착오와 잘못이 야기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루하리만큼 보수적인 조상숭배의 정신 문화속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여 신도시 이외의 각지에는 많은 전통적 고가(古家)들이 잔존해 있었다. 그 고가들로 이제는 신생활 양식에 밀리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애석하기 이를데 없는 일이라 하겠고, 뜻있는 이는 이를 보존하고자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주가의 형식이나 기능 구조면에서는 고래로 전하는 바와 같이 전통계승과 상고(尙古)·보수적인 배두리 안에서 개량되고 발전되어 왔기에 잔존하는 고가들을 지역별로 생활동별로 조사되면 보다 옛일들을 깨낼 수 있을 것이다.

(2) 주거의 확대

생산활동이 증대되고 제도문물이 발전됨에 따라 주거생활도 확충되어야 한다. 창고·오양간·헛간·대문간등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들을 몸체에 달아 짓기는 불편하므로 별채로 짓는 것이 용이하다. 즉 2칸방과 부엌이 달

린 몸체 앞에 문간채를 따로 지으면 새로운 주거 공간이 형성된다. 여기에 울타리를 두르면 몸체와 바깥채의 사이의 마당은 주생활에 알맞는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그림 11) (안채와 바깥채)는 한가구의 완성된 배치도이며, 이 형식은 전국적으로 옛부터 지금까지 계승되어 온 것이다. 바깥채의 배치는 보통 몸체의 앞에 두지만 대지의 지형에 따라서는 동쪽 또는 서쪽에 몸체와 직교하게 배치하기로 한다. 생활이 윤택해지고 식구가 늘며 남녀구별이 엄격해지는 유교식 생활하에서는 대가족제도에 상응하는 주거실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바깥채에 사랑방이나 뜰아랫방이 요구되며, 아울러 안채에도 건넌방이나 마루방등이 증가되어야 한다. 2칸방으로 충분하였던 것이 건넌방·뜰아랫방·사랑방 등이 요구되면 그 배치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림11) 안채와 바깥채

(3) 방의 증설 강과 곁집의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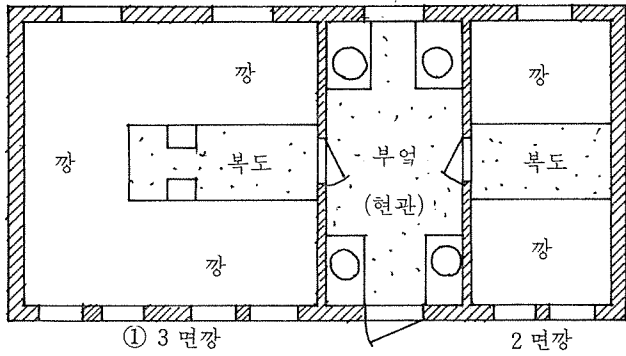
2칸방으로 족하던 것이 독립된 별실이 요구되면 이를 배치하는데 별채로 하거나 몸체에 달아 짓는다.

북부지방에서는 정춌간을 둔 곁집으로 방이 증가 되고 또 퇴마루도 형성되면 일단 대가족이라도 거주에는 지장이 없게 될것이다. 이외에 필요한 창고, 오양간, 대문간 등은 별채로 구성하고, 주택의 한 구획을 울타리로 둘러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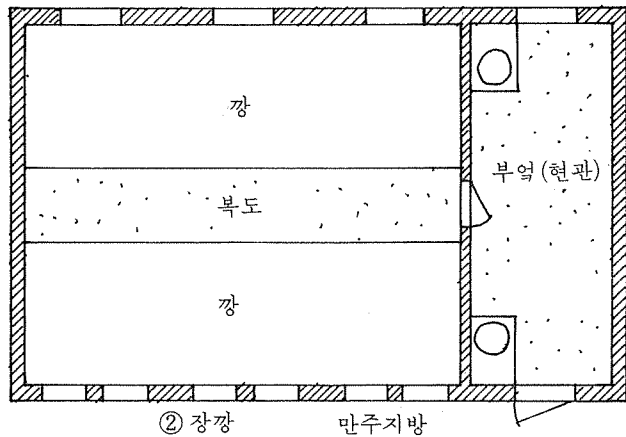
그림 12(만주깡과 함경도 곁집)의 ①·②는 만주깡 구성의 확장단계를 보이고 ③·④는 함경도 곁집의 완성단

계를 보인 것이다. ④의 면차(面遮)는 부엌이나 정춧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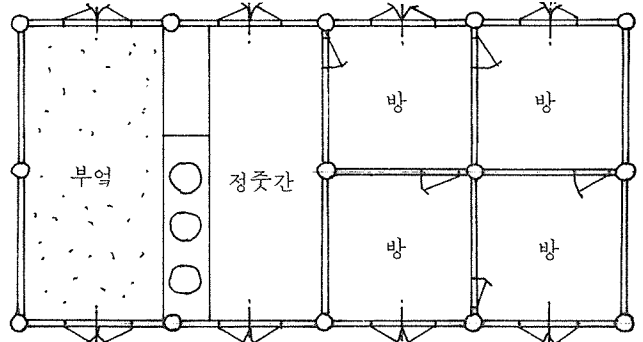
이 들여다 보이는 것을 차폐하는장식을 겸한 낮은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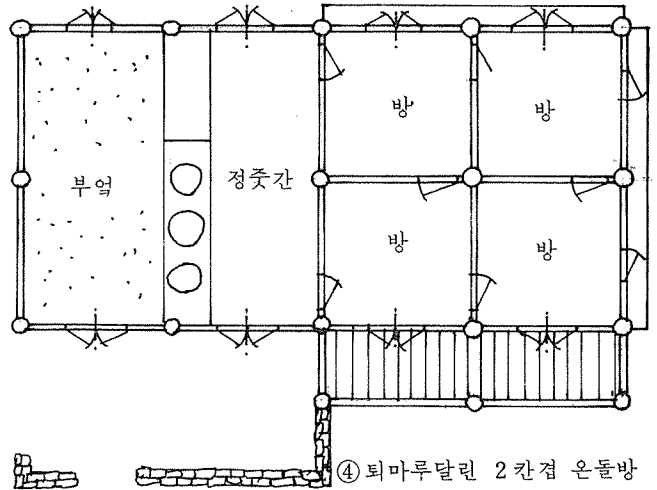
A4 2면·3면 장



② 장장 만주지방



③ 2칸 겹 온돌방 (함경도지방)



④ 퇴마루달린 2칸겹 온돌방

(그림12) 만주 장과 함경도 겹집

(4) 서북부 온돌방·마루방 및 사랑채의 증설

평안도에서는 2칸온돌방에 방이 더요구될 때 안방에 붙은 골방·부엌 옆에 따로 붙인 건넌방 또는 골방 대신에 마루방을 증설하는 세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이중 골방을 달아 짓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용이하지만 구들 놓기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 그 기술이 많이 진보된 다음의 일이라 생각되지만 만주지방의 장장(長炕)에 해당되는 구조법이어서 제일 먼저 발생되었을 것이다.

마루방의 증설은 여름철의 사용에는 좋으나 1년의 1/4이 극한 추위의 지방으로서는 무리한 욕망이며, 또 목수직의 고급기술이 요구되고, 삼림이 풍부한 지방이라도 재치목의 번거로움 등 비용이 과대하여지므로 상류주택이 아니고서는 무리라 할 수 있다.

마루방은 원래 남부에서 성행되던 것이 증부를 거쳐 북상된 연후에 서서히 그 묘미를 알고 채택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여유가 있는 상류층에서 많은 방을 꾸밀 수 있으나 보다 안락한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꾸몄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채용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건넌방을 부엌 옆에 꺾어 달아 짓는 것은 초기 가옥구

조로서는 곤란하였을 것이다. 안마당 쓰기에는 펍 유리하고 아늑한 공간이 꾸며지기는 하나 구조법상의 문제가 많은 것이다. 그 구조법상 지붕틀 걸기 지붕잇기 등 어려운 점이 있어 펍 후세에 성행되었을 것으로 본다. 초기에는 부엌 옆에 별채로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 건넌방을 증설하는 일은 마루방을 두는 것 보다 먼저 보급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서북부의 가옥들이 7자로 꺾어 온돌방을 두고 있으나 마루방을 둔 예는 드물고 근자에 와서 마루방이 성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건넌방도 단간방이 아니라 두칸방으로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서북부에서도 부엌과 두칸방을 둔 3칸 몸체를 꾸민다음 대문간·광·측간(側間)·오양간 등을 바깥채로 따로 짓는다. 여기에 건넌방·골방·마루방 등의 증설과 아울러 사랑방과 증속되는 하인 거주실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것들을 모두 바깥채에 수용하며 주택의 외곽을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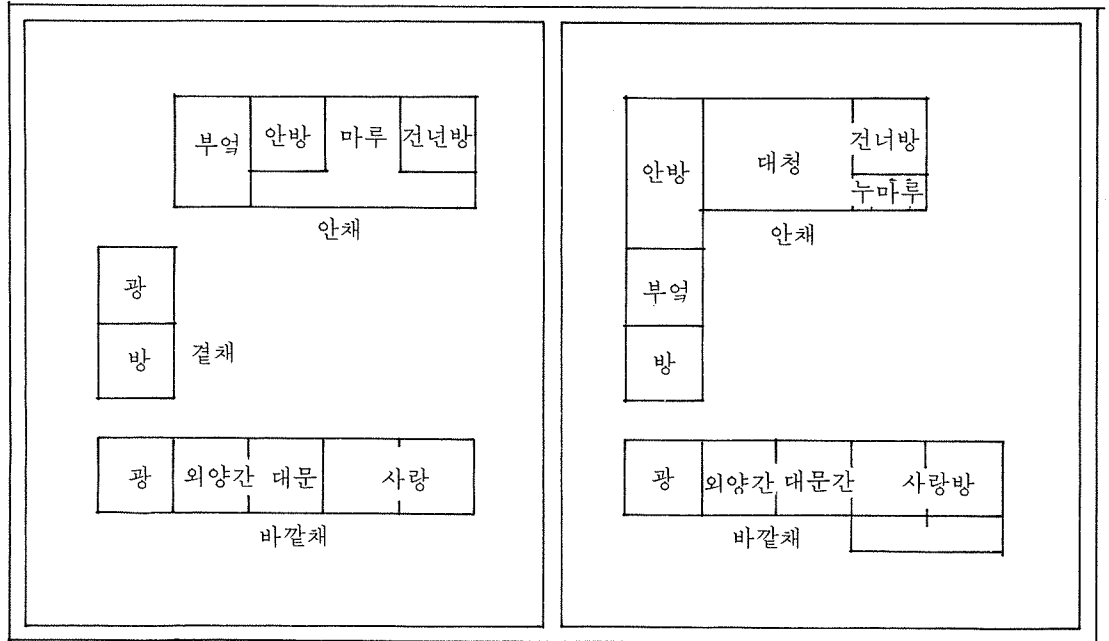
사랑채 외에 따로 행랑채를 두는 일은 상류 대가가 아니면 거의 없다.

(5) 중부 도시주택의 확장

중부지방 특히 도시주택에서는 협소한 대지에 많은 방을 꾸며야 하기 때문에 건물의 간살잡기·배치 등이 용이하지 않다.

중부지방에서는 일찍이 주택에 마루방이 도입되고 퇴간이 생기게 된 것은 앞의 (그림 7) (마루방과 퇴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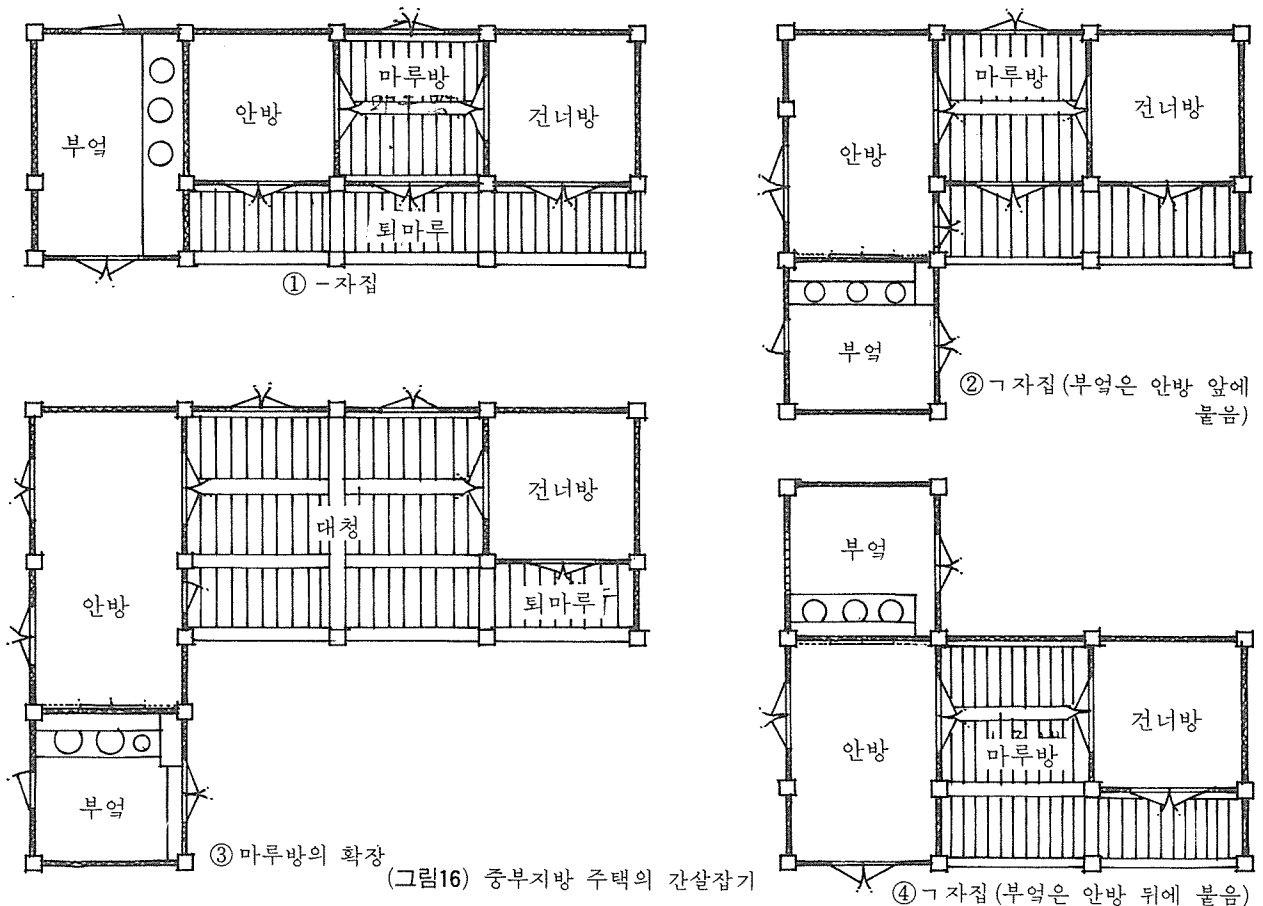
서 말한 바 있으나 이와 동시에 건넌방 한칸을 더 늘려 지었을 것이 추측이 된다. 다만 온돌방의 독립성을 강조하여 두칸 온돌방 사이에 마루방을 두어서 건넌방이 생겼는지, 온돌방 한칸에 마루방이 붙고 나서 건넌방이 더 붙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 경향으로 보아 전자가 타당할 것 같다. 이렇게 건넌방을 늘림과 동시에 사용에 편리한 앞퇴를 달아 안채는 완형을 갖추게 된다



① 따로 지은주택

② ㄱ자 평면 또는 ㄷ자로 되는 주택

(그림15) 건물의 배치법



① -자집

② ㄱ자집 (부엌은 안방 앞에 붙음)

③ 마루방의 확장

(그림16) 중부지방 주택의 간살잡기

④ ㄱ자집 (부엌은 안방 뒤에 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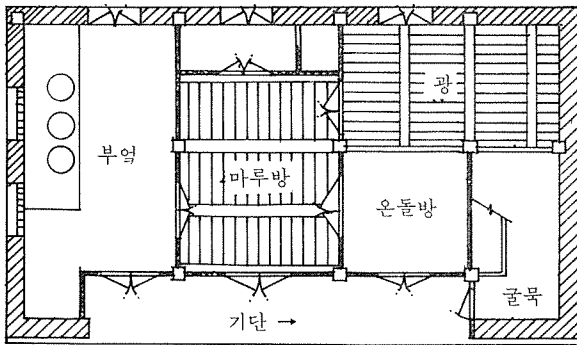
(그림15) (건물의 배치법)의 ①은 안채와 겹채 및 사랑채가 따로 지어진 배치이고 ②는 안채와 겹채가 ㄱ자형으로 한 데 붙고 사랑채는 따로 떼어 배치된 것이지만 이것이 겹채에 붙게되면 ㄷ자형 주택이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부엌·안방·마루방 및 건넌방을 -자로 평면을 구성하면 대지가 넓어야 하고 동선도 길어지므로 ㄱ자형으로 꺾어 평면을 구성한 것이다. 더우기 마루방을 한두칸 더 늘려 3칸 대청으로 하게 되면 불편을 덜고 각 방에 연결되어 식사 기타의 동선을 줄이는 데에도 좋을 뿐 아니라 밀집되는 협소한 도시의 대지에서는 필연적 착상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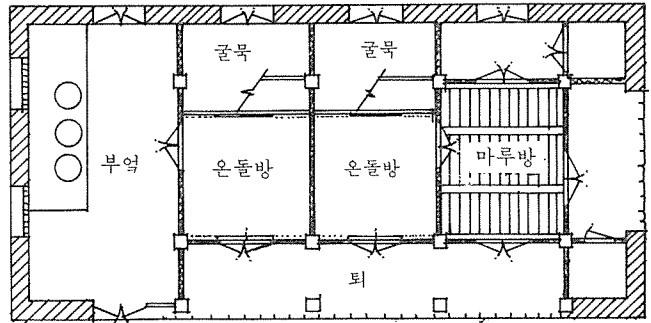
부엌을 안방 앞으로 붙이면 동선도 유리하고 각 방의 시중들기에도 편리하며 안마당의 공간도 아늑하게 되어 보다 사용에 편리한 주택이 구성된다. 그 평면형의 변화를 (그림16) (중부 지방형 주택의 간살잡기)에 보인다.

(그림16)의 ①은 부엌과 각방을 일렬로 나열하고 퇴간을 닦은 평면이고, ②는 부엌을 안방 앞에 ㄱ자로 꺾어 붙인 것이다. ③은 마루방을 크게 늘려 퇴간을 통하여 1실로 만들어 대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앉을 수 있는 큰 방을 꾸민 것이다. ④은 부엌을 안방 뒤에 ㄱ자로 꺾어 붙인 주택평면인데 개성지방에 간혹 있었다고 하나 실례를 보지 못하여 단언 할 수는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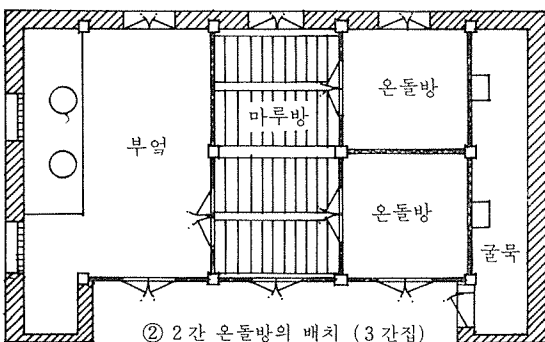
이들 평면도에서 부엌이 안방 앞에 붙게 되면 안방이 다소 칙칙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안방에는 서측 또는 동측면에 광창(光窓)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④는 부엌을 안방의 뒤에 두었으므로 안방은 양치 바른 남향으로 가장 좋은 위치라 하겠으나 부엌이 어둡게 되어서 불리하다. 부엌은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곳이므로 보다 편리하고 밝은 데 두는 것이 좋겠다. 다만 채광만을 볼 때는 다른 평면과 효과가 동일하나 해가 중천에 있을 때는 그늘이 져서 어두울 뿐 아니라 남향집의 뒷쪽에 중요한 살림이 있는 것은 출입에도 불편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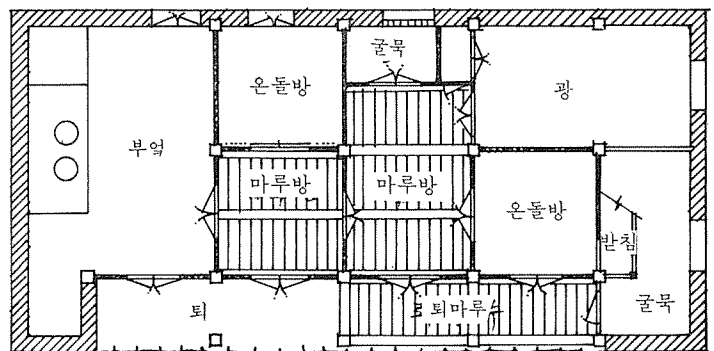
① 온돌방의 도입 (3 간집)



③ 부엌에 달린 온돌방 (4 간집)



② 2 간 온돌방의 배치 (3 간집)



④ 2 간 온돌방과 광의 배치 (4 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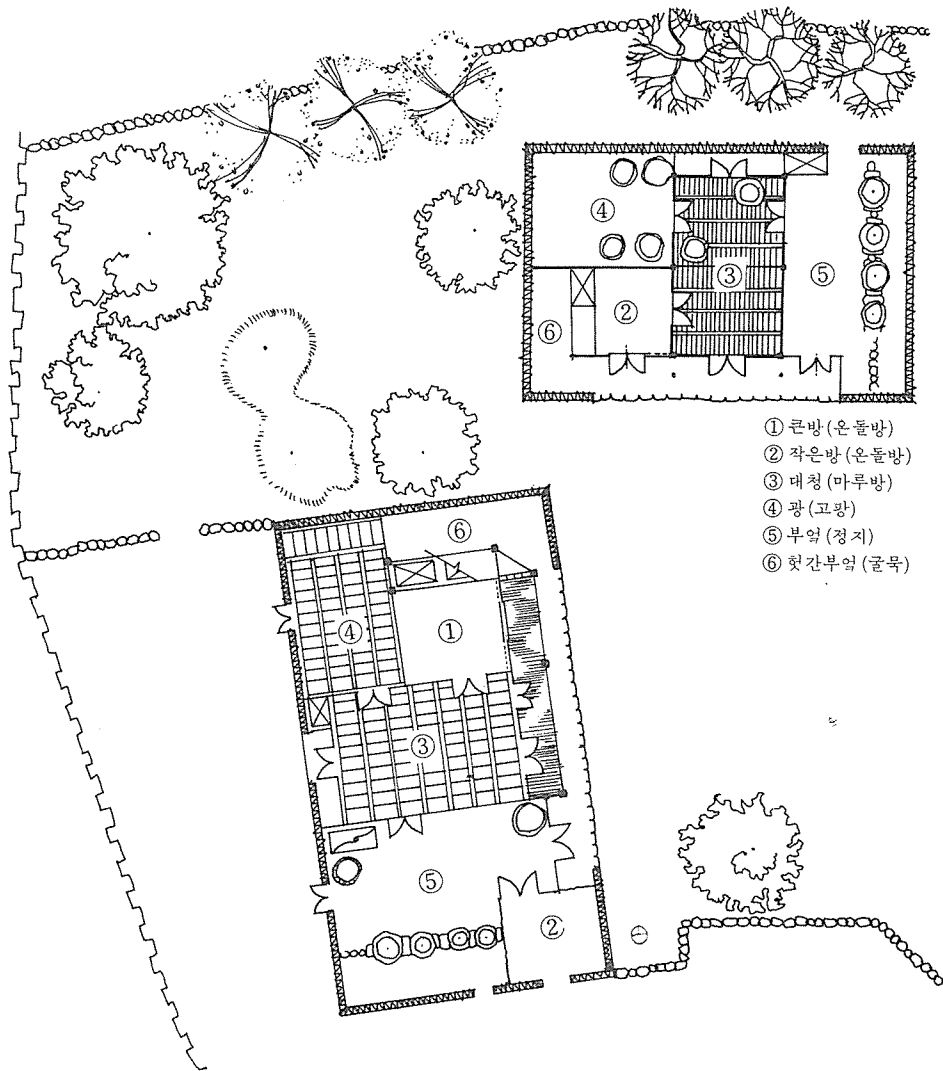
(그림17) 제주도 민가의 온돌구성

(6) 제주도의 주택

제주도 지방의 주택의 특성은 건물의 외곽을 돌로 축조하는 데 있다. 여기에는 가공하기 쉬운 석재가 어디에서나 산출되고 논밭의 돌은 처치가 곤란하였을 정도니까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또 돌로 축조된 담벽은 수시 불어닥치는 강풍에도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구조법은 내륙과 동일형인 ㄱ자 또는 ㄷ장형의 평면으로서는

대단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러방을 한데 묶어 배치하는 함경도의 접집형식의 평면구성이 되는 것도 당연하다. 대문간·측간·오양간·돼지 울 등의 부속실을 몸채와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건물의 기능 구조상 편리하고 위생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지방에 온돌이 도입되고 성행된 시기는 자세히 알



(그림18) 제주도 인가 (성읍리 838번지 강봉석씨택)

수는 없으나 고려조 이전에 알려지기는 하였을 것이고 문물교류가 잦아지고 몽고병란도 있어 내륙의 건축제도를 많이 따랐을 것이다. 조선조 때에는 보다 빈번한 왕래와 귀양자들의 생활방식의 영향을 받아 온돌방제도가 보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륙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행대기는 근세에 이르러 비롯되었다고 보아진다. 그 이유로서는 기후가 온난하여 온돌이 절실히 요구되지 아니하였으며 해풍과 계절풍이 강하게 불어 불내기가 일수이고 구들장(溫突石)의 채취난과 그 구조기술의 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온돌방이 일찍부터 보급되었더라면 불아궁과 부뚜막의 처리나 부엌과 온돌방이 보다 유리하게 배치되어야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부엌이 마루방 옆에 접하여 있고 부엌 안에 따로 부뚜막을 구축하는 것 등은 온돌방이 주실이 아니고, 마루방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 부엌의 한 옆에 온돌방을 두되 불아궁을 부엌 안에 두지 아니하고 따로 헛간 부엌을 꾸며 그 안에서 불을 때게 하는 것 등이다.

제주도의 주택에서 마루방을 한칸 더 늘리고 부엌을

크게 확장하는 것도 주목할 일이다. 제주도 온돌방이 도입되는 과정을 살펴 보면 온돌방에는 반드시 헛간 부엌(굴목)을 두는 일과 처마미를 이용하여 건물의 외곽을 돌로 쌓는 것이다. (그림 18) 제주도 민가의 온돌구성에서 ①은 마루방 다음에 온돌방과 광을 붙여 짓되 처마 밑에 헛간부엌(굴목)을 두고 주위벽은 돌로 쌓아 처리된 민가의 기본형의 하나이다. ②는 2칸 온돌방을 나란하게 배치하고 굴목을 둔 예이고, 모두 전면 3칸 집이다. ③은 부엌옆에 온돌 2칸을 두되 불아궁은 뒷처마 밑에 따로 설치한 예이다. 이것은 퇴마루를 둔 서북부지방의 방의 확장법과 동일한 수법으로 비교적 근자에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는 2칸 마루방을 두고 또 온돌방을 두되 온돌방의 1칸은 부엌에 접해 있으나 헛간 부엌을 따로 내고 불아궁은 헛간부엌에 두고 있다. 헛간부엌을 제주도에서는 「굴목」이라 하며 함실 불아궁을 내고 허드레물건을 간수하는 창고 또는 헛간으로 쓰이는 곳이다.

참고: 「제주도 민속촌 지정 보존지역 조사보고서」 조사자 김홍식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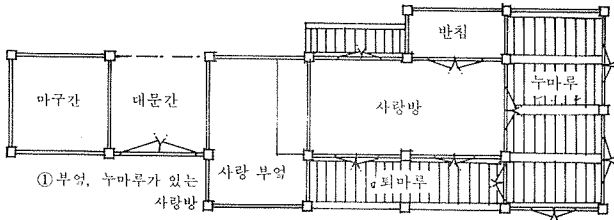
8. 상류사회의 주택

(1) 사랑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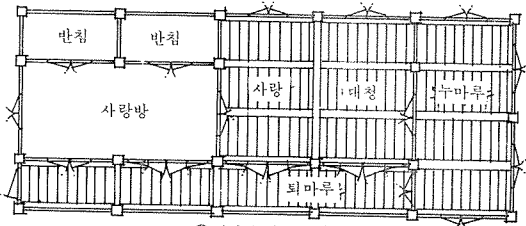
조선조 말기까지 생활이 윤택해지고 유교적인 사회제도 하에서는 남녀구별이나 주종관계가 다양해져서 이에 상응하는 주택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가족제도와 인간개성의 확립 등은 더 많은 방이 필요하게 되었다.

몸체에 붙여짓거나 따로 별채로 지어 보다 안락하고 규모있게, 드디어는 호화롭고 사치로 꾸미는 경향도 있어 이를 제재하는 법까지 자주 거론된 일도 있다.

몸체에서 ㄱ자로 달아 지어 부엌과 찬마루 또 뜰아랫방을 여러칸 배치하고 바깥에는 사랑방을 두되 온돌방



① 부엌, 누마루가 있는 사랑방



② 대청이 있는 사랑방

(그림19) 사랑채

2 칸과 사랑부엌, 마루방 또는 누마루 2 칸 이상을 두고 온돌방 앞에는 퇴마루, 뒤에는 반침을 둔다. 또 4 칸대청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배치하거나 한 쪽에 온돌방 다른 쪽에는 누마루를 설치 하기도 한다. (그림19) (사랑채) ①은 대문간에 접속된 서민주택의 사랑채이고, ②는 별채로 된 사랑채로서 상류주택의 한 예이다.

(2) 곁채

몸체에서 ㄱ자로 붙여 지어 부속실 등을 배치한다. 창고·헛간·신탄광 등도 여기에 배치하고 동쪽 또는 서쪽에 대문간과 측간을 배치 하기도 한다.

(3) 행랑채

행랑채는 주택의 남쪽과 동서쪽을 에워싸서 담장의 효과와 각종 부속실과 하인용 각 실을 배치한다. 여기에는 고설각(高設閣)으로 소슬대문을 두어 주택의 격식을 높이고 있다. 또 미곡(米穀)창고, 기명·기구, 신탄 기타 각종 물품의 저장고와 하인배의 기거실과 부엌, 그리고, 동내 사랑방과 대청을 두기도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마구간, 오양간, 닭장, 양잠실까지 각종 헛간도 배치한다.

(4) 중사랑채

대가족제도가 되면 4 대 이상이 한가족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중사랑채를 배치하여 젊은 주인이 쓰고 바깥사랑방(큰사랑)에는 연로하신 남자어른의 기거 생활실로 쓰인다. (다음호에 계속) ■

新刊

病院建築의 構成

林光星·梁克永 譯
B5·360面 定價 9,000원

세계적인 전문가에 의한 병원기능의 전반적인 구성과 계획의 내용·치수·비품의 종류와 그 배치법·환경 등을 상세히 해설

全國有名書店에서 販賣中!

建築·環境·選書

Form Follows Fiasco 피이더 블레이크 著 尹 一 柱 譯

① 近代建築은 왜 失敗하였는가 A5·222面 定價 4,000원

Third Generation 필립 드류 著 崔 武 革 譯

② 建築의 第三世代 A5·264面 定價 4,500원

近刊

③ 轉換期的 建築 Architecture in transition

—現代建築의 哲學—

④ 建築宣言文集 Programs and manifestoes on 20th century

⑤ 個人的 空間 Personal space

—디자인의 행동적 기초—

圖書技文堂

出版 서울特別市 鍾路區 鳳翼洞154
☎ 764-4151·764-1149